

여전히 읽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을 위한 찬가

계속 읽기: 기억하지 못해도

한유주 지음

‘읽기에 관한 책’의 미덕 중 하나가 “다른 책들로 이르는 여정을 만들어 주는 경험”이라고 할 때, 소설가 한유주의 에세이 ‘계속 읽기: 기억하지 못해도’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더불어 책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봤을법한 이야기가 줄줄이 등장해 자연스레 ‘나의 이야기’도 떠올려보게 된다.

디지털 콘텐츠 홍수 속에서 종이책이 주는 매력이 독특한 ‘물성’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은 그 최고치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한 권의 책이 등장하는 ‘계속 읽기’의 표지와 디자인을 자주 들여다보고 독특한 촉감을 계속 느끼기 위해 책을 가방에 넣는 대신 손에 오랫동안 쥐고 싶어진다.

‘계속 읽기: 기억하지 못해도’는 제목처럼, 책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읽기를 멈추지 않는 이들을 위한 찬가다.

저자는 읽기라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며 두 가지 개념을 언급한다. 하나는 ‘라쿠나(lacuna)’. 영어의 사전적 의미는 “(글·생각·이론 등에서) 빈틈”이라는 뜻으로 그는 “텍스트 안에 비어 있거나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틈”이라 설명한다. 책을 읽을 때 “왜 이 인물이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할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우리는 각자의 경험치 등을 녹여내며 ‘자신만의’ 시각으로 비워 있는 틈을 채우는 ‘능동적인 독자’가 된다. 또 하나는 데리다의 책에서 언급된 ‘아포리아(aporia)’다. “딱다른 골목”이라는 뜻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나 모순을 의미한다고 한다.

저자는 “라쿠나와 아포리아는 읽는 행위를 계속해서 흔들고 지연시킨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읽기를 멈추고



한유주의 ‘계속 읽기’는 책과 읽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소설 ‘통과비자’를 읽은 후 책에 등장하는 로제 와인과 피자를 먹으며 소설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통과비자’를 원작으로 한 영화 ‘트랜짓’의 한 장면.

크고 작은 심연들과 마주해 저마다 생각에 잠긴다. 읽기는 완결된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완성형 해석보다는 오히려 언제나 변화할 가능성을 품은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학은 빈 공간을 상상하게 하고, 독자는 읽으며 나름대로 그 공간을 채워나가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읽는다.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함께 등장하는 책은 한 번쯤 읽어보고 싶어진다. 그녀가 스무 번쯤 읽고 만들새가 마음에 들었다 언급한 마르그리트 뒤라스의 ‘모데라토 칸타빌레’나 역시 저자가 20년간 수십 번 읽은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책의 무게를 버거워하는 책장이 등장하는 인도 에서광의 에세이 ‘신음하는 선반’ (프라딕 세바스찬) 등이다.

크리스토퍼 페츠포트 감독의 영화 ‘트랜짓’과 원작 소설인 안나 제거스의 ‘통과비자’를 읽고 난 후 독서모임 회원들과 책 속에 등장하는 로제 와인과 피자를 먹으며

소설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나 대학 시절 학교 근처의 서점에서 만났던 책 이야기도 흥미롭다.

책을 넘기다 보면 각자의 ‘읽기’를 떠올리게 된다. 책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던 순간들이라든지, 생존 가방을 꾸리는 취미가 있는 저자를 따라 무인도에 가져갈 책을 짊어 보는 것이 라든지, 결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책의 목록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종류의 독서대, 천으로 된 책싸개, 독서등을 비롯한 독서 관련 장비와 언제나 흥미로운 에서가들의 이야기, 작은 도서관을 찾는 즐거움, 같이 읽기, 메모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책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는 황재영 사진작가를 알게 된 점이다. 누구라도 책 표지를 보는 순간 그의 ‘다른’ 작품이 궁금해질 터다. <마티>1만 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저속노화를 위한 생물학(한치환 지음)=“늙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에너지공학자의 시선으로 풀어낸 생명 활동과 노화의 메커니즘. 생명체의 탄생에서부터 성장, 노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에너지 대사’라는 핵심 개념으로 조망한다. 유전자 편집과 사이보그 기술까지 아우르며, 그 기술들이 ‘무병장수’라는 인간의 오랜 꿈을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를 묻는다. <플루토>1만8000원



▲뒤로 걷는 길(황규관 지음)=“이제는 앞을 보며 뒤로 걸어야지/어둠이 되어/어둠을 사랑해야지/뒤가 앞이 되게 해야지/뒤도 앞도 사라지게 해야지” 삶과 노동, 생의 근원을 묻는 치열한 사유가 담긴 황규관 시인의 신작 시집. 성장과 진보의 허상을 꿰뚫는 시선으로,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동학’ 연작을 비롯해 고통 속 연대와 성찰을 통해 참된 전진의 의미를 되묻는다. <창비>1만3000원

▲그림자에 민감해지기(베레나 카스트 지음, 이상희 옮김)=용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그림자’를 쉽게 풀어낸 입문서. 자기안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낸다. 관계 속 투사와 갈등, 집단적 그림자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든다는 메시지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든다는 메시지

를 전한다. <두시나나무>1만9000원

▲우리 아이 집중력이 흔들리고 있다(박은선 지음)=스마트폰과 자극에 익숙해진 요즘 아이들, 집중력은 왜 떨어질까. 16년 차 교사인 저자가 교육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집중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몸·마음·머리·환경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 단련법을 제시한다. 워크시트와 테스트, 상담 코너까지 실용 자료도 알차게 담겨 있다. 집중력은 공부 능력을 넘어 삶을 주도하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뜨인돌>1만7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두더지의 조금 용감한 하루(마야 다 츠키와 지음, 장미란 옮김)=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두더지가 조심스럽게 세상과 친구가 되어 가는 이야기. 친구 토끼의 파티에 초대받은 두더지는 가고 싶지만 낯선 이들과 어울리는 일이 쉽지 않다. 걱정을 거듭하던 두더지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스킨크와 마주치고, 마음이 맞은 둘은 친구가 된다. 스텐실 기법으로 완성된 섬세한 그림 속에 동물 친구들의 사랑스러운 일상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 <책읽는곰>1만5000원

고, 은퇴 교사 에두아르 할아버지와 우정을 쌓는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할아버지와 이별은 슬프지만, 모모는 책을 통해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외톨이 소년이 문학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가는 몽클랑 성장 동화. <불광출판사>1만4000원

▲늘지의 렌(최상희 지음)=청소년들에게 갑작스레 괴력이 생기고, 정부는 소집령을 내려 외딴 시설로 격리시킨다. 열다섯살의 렌은 그곳에서 동료들을 만나 함께 벗어날 길을 모색한다. 평론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진짜 친구가 되어간다. 폭력에 맞선 다양한 손길과 연대의 힘이 어둠을 밝히는 이 이야기는 진짜 ‘정상’이란 무엇인지 묻고, 함께 버티는 용기의 가치를 일깨운다. <창비>1만5000원

▲모모의 여름 방학(아엘 아쌍 지음, 박재연 옮김)=한 소년의 여름이 책과의 만남으로 파스하게 빛난다. 이주민 소년 모모는 ‘어린 왕자’를 읽으며 도서관을 드나들

꽃·흙·낙엽·공기...문태준 시인의 초록문장 자연일기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

문태준 지음

문태준 시인의 글은 따뜻하다. 그리고 서정적이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은 깊고 섬세하다. 소설시문학상을 비롯해 무월문학상, 정치문화문학상, 박인환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이력이 말해주듯 그는 일반 독자들은 물론 평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다. 이번엔 문 시인이 펴낸 산문집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는 흙에서, 자연에서 꺼내거나 발견한 사유와 단상을 엮었다.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제주 시골 마을에 내려가 산 지 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시인은 자신만의 감성으로 삶의 본질과 그 속에 담긴 깨달음을 시적인 문체로 풀어낸다.

‘문태준 시인의 초록문장 자연일기’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 자연으로 대변되는 꽃, 흙, 낙엽, 공기 등을 모티브로 인생을 사유한다. 느끼고 살피는 것, 자연과 대화하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독자를 또한 시적 산문을 매개로 저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문장들이 주는 울림을 느낄 수 있다. 감각적 이미지와 시적 사유, 비유적 이미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듯이 일게 한다.

책의 순서가 흥미롭다. 보통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데 반해 여름, 가을, 겨울, 봄으로 구성되었다. 아마도 책의 끝은 봄이어도, 그것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각각의 장은 ‘여름 정원에 은하 같은 수국은 피어’, ‘가지마다 자줏빛 무화과 조롱조롱 맺혀 있고’, ‘눈보라

에도 살얼음 같은 발자국 남기고’, ‘오목하게 모은 손바닥에 고인 밝은 빛처럼’으로 이어진다.

시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문정헌(文庭軒)’이라 불렀다. 원래 고향인 경북 김천의 시골집의 당호를 제주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정진규라는 선생님이 지어준 것으로 ‘문かね 집’, ‘시 짓는 이의 집’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문정헌에 살며 그렇게 저자는 풀을 뽑거나 정원 일을 하며, 더러는 마주하는 사물을 통해 배운다. 반걸음씩 물러나는 것이 사실은 평화로운 자신에게로 들어가는 일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골의 자연 속에서 살면서 또 화단을 가꾸고,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생명 존재들과 관계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음의숲>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다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